

## 이의리 생일날 '생애 첫 태극마크' 윌리엄스 감독 "환상적 경험 될 것"

"나라 위해 될 수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  
이의리 "배운다는 자세로 성실히 할 것"

2021년 6월 16일, KIA 타 이거즈 좌완투수 이의리(19)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듯하다. 프로 데뷔 후 처음 맞는 생일에 도쿄올림픽 야구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태극마크의 기쁨이기에 무엇보다 바랄 수 없다. 소속팀 사령탑 맷 윌리엄스 감독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자의 선전을 기원했다.



KIA 이의리

윌리엄스 감독은 16일 광주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 제1경기에 앞서 "(대표팀 발탁은) 이의리에게 굉장한 큰 생일선물"이라며 "대표팀에 좌완투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베테랑과 젊은 피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안다. 이의리에게는 환상적 경험이 될 것이고,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의리는 올해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KIA의 1차지 명으로 입단한 유망주다. 첫해부터 1군 10경기에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ERA) 4.50의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신인왕 후보로 부상했다. 신인투수에게 선발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맡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윌리엄스 감독의 선택도 대표팀에 발탁된 요인 중 하나다.

윌리엄스 감독은 "나는 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대표팀 유니폼을 입어봤다"며 "내 나라를 위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웠다. 소속팀과 태극마크 유니폼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의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느껴야 한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나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의리는 학창시절 청소년대표팀에 발탁된 경험이 없다. 그러나 프로 데뷔 첫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태극마크를 달고 선다. 그 기쁨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다. 이의리는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예상 못했던 일"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겸손하게,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모든 것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J 강간 기자 posterboy@donga.com

### 알립니다

#### 스포츠 취재 경력기자 모집

스포츠동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를 이끌어 나갈 스포츠 분야 취재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2008년 창간한 스포츠동아는 1등 스포츠신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평가에서 스포츠신문 1위, 일간신문 8위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스포츠동아는 젊은 인재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스포츠동아와 동행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부문: 스포츠 취재(축구, 농구, 야구, 축구 등) 경력기자 0명
- 지원 자격: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등 경력 3년 이하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 기사 5건(hwp, doc 파일, PDF로 제출)
- 접수 기간: 2021년 6월 14일(월)~25일(금)
- 접수 방법: 이메일 ten06sy@donga.com
- 문의: 스포츠동아 경영기획실 02-361-1608

### 김경문 감독이 밝힌 '대표팀 밑그림' 힌트 3가지

## 1 강백호 DH 2 최주환 대타 3 불펜 쪼개기

강백호 타격 집중→1루수 오재일 유력  
최주환 대타로 2루수는 사실상 박민우  
한현희·최원준·고영표 스윙맨 가능성  
"불펜들 짧게 짧게 잘라 막는 운영 생각"

소집까지 한 달, 대회까지는 그 이상이 남았다. 아직 구체적 밑그림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 다만 김경문 감독은 16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면서 큰 틀에 대해 살짝 힌트를 줬다.

#### ●DH 강백호가 일으킨 연쇄작용

강백호(KT 위즈)의 역할은 일찌감치 지명타자로 고정했다. 1루수로 분류하긴 했지만, 타격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1루수 엔트리에 강백호와 오재일(삼성 라이온즈)뿐임을 고려하면 주전 1루수의 윤곽 역시 드러난다. 리그 유일의 4할 타자 강백호는 김 감독의 여러 구상을 완성했다. 나성범(NC 다이노스), 추신수(SSG 랜더스)의 엔트리 제외 역시 강백호의 활약과 어느 정도 닿아있다. 김 감독은 "추신수는 팔꿈치가 안 좋다. 또한 포지션 역시 강백호와 같이 지명타자로 겸한다. 나성범의 제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강백호는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외야수로도 준비시킬 것이다. 외야는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대타 카드는? 최주환 고민 중

김 감독은 KBO리그 두산 베어스, NC 사령탑 시절은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대타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곤 했다. 2008베이징올림픽 한일전 당시 좌투수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KT 강백호(왼쪽)와 SSG 최주환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강백호는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면서 상황에 따라서 외야수로 기용될 전망이다. 최주환은 김경문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요긴하게 활용할 대타 카드로 기대를 모은다. 스포츠동아DB

이와세 히토키를 상대로 좌타자 김현수를 투입해 역전 적시타를 이끌어낸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런 김 감독의 성향상 타격 스펙트럼리스트의 발탁이 예상된다. 주인공은 최주환(SSG)이었다. 김 감독은 "최주환은 중요한 장면에 대타로 많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자연히 주전 2루수로는 박민우(NC)가 유력하다.

최주환은 올 시즌 36경기에서 타율 0.288, 5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821을 기록 중이다. 다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최주환이 대타 56타석에서 타율 0.240, 2홈런, OPS 0.726으로 선발출장 때(타율 0.308·OPS 0.848)보다 고전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선발만 8명? 불펜 활용법은?

도쿄올림픽 야구는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5경기에서 최대 8경기까지 치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많은 선발투수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투수 10명 중 전문 불펜투수가 2명에 불과한 것은 파격이다. 일부 고정 선발을 제외하면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사이드암 3명(키움 히어로즈 한현희, 두산 최원준, KT 고영표)의 여계가 무겁다.

김 감독은 "투수들이 긴 이닝을 책임지면 좋겠지만 2008년처럼 던져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봉준근(은평) 같은 굳건한 선발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감독은 "불펜투수들이 짧게 짧게 잘라 막는 운영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대체선수대비승리 기여)

(출루율+장타율)

### 'WAR 구원 1위' 강재민 'OPS 2루수 1위' 정은원 탈락, 왜?



강재민

정은원

사령탑이 밝힌 제기준은 성적, 다음은 대표팀의 균형이었다. 수치로 드러나는 성적은 명확한 반면 균형은 추상적 잣대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성적의 잣대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탈락자가 나왔다. 정은원(24), 강재민(24), 정은원(21·이상 한화 이글스)이 그렇다.

김경문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한화 소속은 선발투수 김민우뿐, 사이드암 투수 강재민과 2루수 정은원은 없었다.

강재민은 15일까지 26경기에서 2승3세이브7홀드, 평균자책점(ERA) 0.55를 기록하며 현 시점 KBO리그 최고의 불펜투수로 올라섰다. 20이닝 이상 던진 투수

101명 중 유일한 0점대 ERA다. 클래식 통계만 좋은 것도 아니다. KBO 공식통계업체인 스포츠동아가 기준 대체선수대비승리 기여(WAR)는 1.85에 달한다. WAR이 불펜투수에게 다소 박한 지표인데도 강재민은 구원 전체 1위는 물론 웬만한 선발투수들보다도 앞선 전체 11위다.

김 감독이 지난해 신인왕 소형준(KT 위즈)의 제외에 대해 "투수 컨디션은 그때그때 바뀐다. 소형준의 올 시즌 모습은 지난해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지금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강재민의 제외가 더욱 아쉽다. 지난해 50경기에서 1승 2패1세이브14홀드, ERA 2.57을 기록했으니 한 시즌 반쪽도 아니다. 김 감독은 "사이드암 투수 중에서 한 경기 잘하고 다음

최상의 퍼포먼스 불구 엔트리 제외  
한화 선수 중 대표팀 발탁 김민우 뿐

경기 고전하는 선수가 아닌, 꾸준한 선수를 뽑았다"고 말했다.

2루수 정은원도 마찬가지다. 정은원은 58경기에서 타율 0.295, 3홈런, 1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58로 활약 중이다. 리그 출루율 5위(0.429)로 '눈아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OPS는 리그 전체 14위, 2루수 1위다. 리그 최고의 2루수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김 감독의 선택은 박민우(NC 다이노스)와 최주환(SSG 랜더스)이었다.

물론 엔트리가 24명으로 제한되어 성적도 좋은데도 탈락하는 선수는 나오게 마련이다. 다만 강재민과 정은원은 어떤 지표도 틀어막고도 현 시점 포지션 최고의 선수들이다. 이들의 제외에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다.

최익래 기자

### 김경문 감독 "이의리, 조커 역할 기대...사이드암 3명 꾸준해서 뽑았다"

(한현희·최원준·고영표)

장고는 끝났다. 이제 성적으로 증명할 일만 남았다. 김경문 야구국가대표팀 감독(63)은 '국민들에게 활력'을 언급했다.

김 감독은 16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24인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전승 금메달의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금 올림픽 무대에 선다. 김 감독은 "벌써 13년이 지났다. 또 이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다. 13년 만에 올림픽에 야구가 들어가게 됐다. 선수, 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목표를 꼭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인 이의리(KIA 타이거즈)가 깜짝 발탁됐다.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세대 좌완 에이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 조커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뽑았다."

-사이드암 투수 3명(키움 히어로즈 한현희, 두산 베어스 최원준, KT 위즈 고영표)이 포함됐다.

"자기 역할 꾸준히 잘해준 선수들이다. 1경기 잘하고 다음 경기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꾸준히 잘하는 선수들이라 감독들에게 접수가 높다. 보직은 훈련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최정(SSG 랜더스)이 제외됐다.

"2019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최정을 봤다. 투수들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야수비가 견실해야 한다. 최정도 수비를 잘하지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했다."

-아마추어 선수와 박효준(뉴욕 양키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박효준은 영상으로 지켜봤다. 좋은 실력을 갖고 있지만 '오지환이 더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마추어 제외 역시 아쉽다. 한 명이라도 뽑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2019년 "오지환(LG 트윈스)과 박해민(삼성 라이온즈)을 뽑지 않았다"는 발언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인터뷰는 아니었다. 선수 개인의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다. 사석에서 작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보도됐다. 오지환이 지금 수비 가장 잘하지 않나? 타율은 낮지만 수비를 제일 잘한다고 판단했다. 스태프들이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다."

-선수들과 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만만하지 않지만 한국야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든 국민들의 자존심도 걸린 대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선수들이 힘내고 마음을 모아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최익래 기자